

# 온두라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12

I. 일반개황 .....	2
II. 경제동향 .....	3
III. 정치·사회동향 .....	9
IV. 국제신인도 .....	12
V. 종합의견 .....	1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면적	113천 km <sup>2</sup>	GDP	143억 달러
인구	7.32백만 명	1인당 GDP	1,956 달러
정치체제	민주주의	통화단위	Lempira(La)
대외정책	실리추구 경제외교	환율(달러당)	18.90

- 온두라스는 중미 카리브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 온두라스는 전통적 농업 국가이나, 최근 수년간 미국의 무역특혜조치에 힘입어 보세가공수출업(Maquiladora)을 장려하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바나나, 커피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sup>e</sup>	2009 <sup>f</sup>
경 제 성 장 률	6.1	6.7	6.4	4.0	-4.4
재 정 수 지 / GDP	-2.2	-1.1	-2.9	-2.3	-0.5
소비자물가상승률	8.8	5.6	6.9	11.4	9.4

자료: IMF, EIU

#### □ 1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기록

- 온두라스 경제는 2004년 HIPC(고채무빈곤국) 프로그램의 완결시점 도달 이후 미-중미 자유무역협정(DR-CAFTA)\* 체결, 마길라 산업(보세가공업) 및 관광업 호조 등 우호적인 대내외 여건에 힘입어 2007년까지 연평균 6%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DR-CAFTA) : 2004년에 미국과 중미 6개국(온두라스, 파나마, 니카라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서 2007년 10월 코스타리카 의회가 마지막으로 비준하였고, 온두라스 정부는 2005년 3월 이미 의회 비준을 마쳐 2006년부터 CAFTA의 효과를 본격적으로 누리고 있음. 세계은행은 DR-CAFTA 발효 직후 5년 동안 중미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연간 0.6%로 높아지고 2010년까지 약 50만명의 빈곤인구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2008년에도 커피와 사탕수수 작황 호전에 따른 수출 증가, 내수 호조 등에 힘입어 상반기까지는 양호한 경제성장세가 유지되었으나, 9월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미 수출과 FDI 유입이 급감하고 해외 근로자 송금 축소로 민간소비가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은 3.9%로 낮아졌음.

- 2009년에는 미국 경제 침체 지속으로 수출과 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6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의 영향으로 대외원조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199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4.4%)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공공지출 삭감 조치로 재정수지 적자 폭 크게 감소

- 2005년에는 세원확대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HIPC 잠정채무구제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감소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폭이 1% 대로 낮아졌으며, 2006년에도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대와 정부의 긴축정책 효과로 적자폭이 1.7%를 기록,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2007년에는 공무원 임금 상승과 빈곤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및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공공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2.9%까지 상승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부지출이 지연되면서 적자폭은 2.3%로 소폭 축소됨.
- 2009년에는 정치 불안으로 인해 대외 원조가 중단되고 경기 침체로 세원이 급감하자, 온두라스 정부는 공무원에 대한 임금 삭감, 인프라 개발 지원 중단 등 정부지출 대폭 삭감 조치를 단행하여 재정수지 적자폭은 2000년 들어 가장 낮은 0.5%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 유지

- 소비자물가는 2004년부터 고유가, 부가가치세 인상 등에 따라 상승세로 반전하였으며, 2005년에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증가하여 8.8%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06년에는 금리 인상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긴축통화정책에 힘입어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5.6%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2007년 들어 고유가 및 옥수수 등 식품류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7% 가까이 상승하였고 2008년에도 9월까지 지속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8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상반기까지 이어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기조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소폭 낮아졌으나, 6월 군부 쿠데타 이후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고 석유 가격이 상승세로 반전하면서 물가상승압력이 재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2. 경제구조 · 정책

### [구조적 취약성]

#### □ 취약한 수출 구조 및 해외근로자 송금에 의존

- 주요 수출품목이 커피, 새우 등을 비롯한 농수산물, 육류 등 1차 산품으로 국제가격변동과 기후조건 등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음. 국내 제조업 기반 부족으로 산업용 중간재, 자본재 및 소비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여 수입액이 수출액의 두 배에 달하며 이 차이를 국제기구 등의 원조와 해외근로자의 송금액으로 충당하고 있음.

### [성장 잠재력]

#### □ CAFTA 발효 이후 투자환경 개선되었으나, 군부 쿠데타로 인해 신뢰도 하락

- 온두라스는 전력, 도로, 통신 등 각종 인프라 설비가 미비하고, 정치·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2006년 DR-CAFTA가 발효됨에 따라 향후 미국시장을 진출을 겨냥한 외국인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의 인프라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 받았음.

- 그러나 2009년 6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인해 셀라야 대통령이 축출당하고 정국 혼란이 지속되면서 각종 투자계획이 취소되었으며 선진국으로부터 대외원조 중단으로 인프라 확충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어, 그동안 개선된 투자 환경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정책성과]

### □ IMF의 빈곤감축성장프로그램(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 PRGF)의 충실한 이행

- 온두라스 정부는 2004년 재개되었던 PRGF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결과 2005년 3월 HIPC 완결시점(completion point)에 도달하여 총 9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 받았음.
- IMF/IBRD는 온두라스의 완결시점 도달 조건으로 i)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 ii) 최소 1년 이상 빈곤감축전략(PRSP)의 성실한 수행 등과 더불어 다음의 6가지를 주요 이행사항을 내걸었으며, 대부분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6가지 이행사항은 ① 포괄적인 부패방지 프로그램 제시, ② 의료, 연금 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개혁, ③ 빈곤층을 위한 보건서비스 개선, ④ 지방교육 확대 및 교육환경 개선, ⑤ 산업 및 지방자치의 효율성 확대, ⑥ Basel 협약 준수 및 금융개혁 추진 등임
- 온두라스 정부는 2007년 2월 PRGF가 종료된 이후 이를 대체할 정책지원프로그램(policy support instrument) 추진을 IMF와 협의하였으며 전력공사 구조조정 시행, 재정 및 경상수지 개선 노력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2008년 4월 대기성 차관 63백만 달러\*를 지원받았음.
  - 동 차관은 2009년 4월 만료되었으나, 정국 불안 등의 이유로 연장 협상이 지연되고 있음.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5	2006	2007	2008 <sup>e</sup>	2009 <sup>f</sup>
경 상 수 지	-304	-510	-1,225	-2,237	-1,527
경 상 수 지 / G D P	-3.1	-4.7	-9.9	-15.6	-10.5
상 품 수 지	-1,497	-2,122	-2,962	-4,343	-2,321
수 출	5,048	5,195	5,594	6,046	5,250
수 입	6,545	7,317	8,556	10,389	7,571
외 환 보 유 액	2,315	2,616	2,514	2,460	2,119
총 외 채 잔 액	5,181	4,184	3,260	3,200	3,300
총 외 채 잔 액 / G D P	53.1	38.3	26.3	22.4	22.8
D . S . R .	4.4	3.3	3.5	5.1	4.4

자료: IMF, EIU, OECD

#### □ 2009년 수입 급감으로 상품수지 적자 축소

- 2001년 이후 계속 감소하던 수출은 2003년부터 주요 농산물의 작황 호전과 마닐라산업 호황으로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며, 2006년 발효된 DR-CAFTA의 영향으로 수출규모는 2008년까지 크게 증가하였음. 그러나 상품수지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마닐라산업을 위한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
- 2008년에는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커피, 바나나, 새우 등 3대 품목의 대외 수요가 증가하고 중미 지역에 대한 수출이 늘면서 수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석유와 소비재 등 수입 증가율이 전년 대비 20%에 달하면서 상품수지 적자규모는 43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2009년에는 미국의 수요 감소, 농작물 작황 부진 등 악재가 겹치면서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고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도 전년 대비 25% 가까이 축소 될 것으로 보여 상품수지 적자규모는 20억 달러대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됨.

#### □ 경상수지 적자 규모 과도한 수준

- 온두라스 경상수지 적자는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와 과중한 외채이자 부담 등으로 다소 과도한 수준이며, 2005년 3% 수준이던 경상수지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8년에는 GDP 대비 15% 수준까지 증가하였음.
- 2009년에는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 감소 등으로 경상이전수지 흑자 규모가 소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크게 줄어 경상수지 적자폭은 GDP 10%대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 해외근로자 송금은 온두라스의 가장 중요한 외화수입원으로서 2008년에는 GDP의 20%인 20억 달러가 유입되어 동국의 경상수지 적자 보전과 외환보유액 증가에 기여

#### □ DR-CAFTA 영향으로 FDI는 증가

- 온두라스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섬유, 의류 기업의 투자확대, 통신업과 제조업(시멘트 공장)에 대한 현지공장 설립 등의 이유로 2002년 2.7억 달러 수준에서 2006년 6.5억 달러로 2.5배 이상 증가하였음. 총 투자액의 70% 이상이 미국 기업에 의해 이루어져 있으며, 중미와 EU기업도 각각 17%, 12%를 차지하고 있음.
- 2007년에는 자원개발 부문에는 FDI 유입이 소폭 줄었으나, 서비스업과 제조업 부문의 수요가 확대되어 FDI 규모는 8.2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2008년에도 금융, 통신, 관광업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가 미국, 멕시코 등으로부터 크게 유입되면서 사상 최대치인 8.8억 달러를 기록함.

## [외채상환능력]

### □ 외채상환능력 개선 중

- 2008년 말 기준 총외채는 약 33억 달러로 추정되며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HIPC 채무구제에 힘입어 2004년 이후 크게 감소하였음. (2008년 총외채/GDP 비중 22%)

### □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 소폭 개선

-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은 3개월 이내의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외환보유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입 급감으로 3.9개월로 높아짐.

### □ D.S.R는 매우 양호

- 2003년 15%까지 달했던 D.S.R은 HIPC 채무탕감 이후 대폭 낮아져 2009년에는 4% 수준까지 하락하였음.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 및 사회 안정성

#### [정치안정성/소요사태]

### □ 자유당(PL)과 국민당(PN)의 양당제 정치체제 유지

- 군사쿠데타 발발과 군사독재로 정치, 사회적 불안이 계속되다가 1971년 최초로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 민간 정부가 수립되었음.

- 빈번한 쿠데타로 인해 수차례 헌정 중단사태가 발생하여 정당의 발달이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국민당(PN)과 자유당(PL)의 양당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

□ 2005년 11월 대선에서 자유당(PL)의 Manuel Zelaya 대통령 당선

- 지난 2005년 11월 대선에서 사회투자기금 이사장을 역임한 자유당(PL)의 Manuel Zelaya가 집권 여당인 국민당(PN)의 Lobo Sosa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2006년 1월 취임하였음.
- 셀라야 대통령은 동부 올란초 지역 출신의 사업가로 목재산업협회 회장, 온두라스 기업협의회장 등을 지낸 친시장주의자이며, 비행 청소년 개화프로그램 도입 등을 주요 정책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치안강화 높은 관심 표명
- 그러나 총선에서 총 128석 중 62석을 차지, 과반수 획득에는 실패한 이후 국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최근 각종 부패 스캔들, 인플레이 우려 등으로 2008년 이후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하였음.

□ 2009년 6월 군부 쿠데타 발생, 11월 29일 대선 예정

- 셀라야 대통령은 좌파 동맹국인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에서 성공한 제한의회 설립→국민투표 실시→헌법 개헌(연임 허용) 등을 통한 장기집권 체제를 구축하려 하였으나, 군부, 의회, 대법원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 왔음.
- 이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개헌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국민투표 당일 새벽(6월 28일, 현지시간) 온두라스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셀라야 대통령을 체포하고 코스타리카로 축출하였음.
- 셀라야 대통령은 2009년 9월 은밀히 본국에 귀국하였고 미첼리티 대통령 권한 대행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정국 불안 양상이

지속되었으나, 미국의 중재로 11월 29일 대선을 치르기로 양측이 합의하여 정국은 다소 안정국면에 접어들었음.

- 여론조사에 의하면 야당인 국민당(PN)의 Sosa 후보가 여당인 노동당 Santos 후보에 비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 안정성]

### □ 실업, 빈곤, 범죄 등 사회불안 요소 상존

- 인구의 40% 이상이 1일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등 인구의 50% 이상이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고, 국민의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60%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20%는 3.4% 소득을 점하고 있는 데 그치는 등 소득 불균형이 심함. 또한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이 높아지면서,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2. 국제관계

### □ 주변국과의 분쟁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미국의 지원 하에 경제재건이 이루어져 왔으며 대외적으로 친미, 친서방 및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관계에 역점을 두었으나, 셀라야 정부 기간 중에는 베네수엘라와도 정치경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음.
- 셀라야 대통령은 2006년 친서방, 우익정책 등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당선 이후 쿠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 좌파 국가와 정치적 동맹관계를 확대하여 남미 좌파연맹인 'ALBA' 및 Petrocaribe 등에도 가입한 바 있음.

- 국경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보인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과는 정상회담, DR-CAFTA 체결 등을 통해 관계가 상당부분 회복된 상황이어서, 국경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낮음.
- 쿠데타 지원을 둘러싸고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배후설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 : 6등급(08. 6) → 6등급(09. 7)
- Moody's : Ba3(06. 3)

###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US EXIM : 제한적 인수 가능
- 영국 ECGD : 개별심사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가능

### 3. 외채상환태도

#### □ 외채위기 경험국

- 1980년대 중반 시작된 외채위기로 1989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도 하였으나, 1991~92년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과 파리클럽 및 주 채권국인 미국의 지원으로 채무지급 중단 사태에서는 벗어남.
- 1997년 47억 달러 수준이던 총외채는 계속 증가하여 2004년에는 58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2005년 HIPC 완결시점에 도달하는 한편, 파리클럽 채무에 대한 추가 삭감으로 2007년 외채규모는 32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 HIPC 완결시점(Completion Point) 도달

- 2000년에는 Enhanced HIPC 수혜 대상국가로 선정되었으나, 재정 적자 확대,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IMF의 PRGF 프로그램 및 채무 구제가 잠정 중단된 바 있음.
- 그러나 2004년 2월 온두라스에 대한 IMF의 PRGF 프로그램이 재개 되었고, 2005년 4월에 완결시점에 도달하여 향후 20년간 9억 달러 (NPV 기준으로 5억 5,600만 달러)를 탕감 받게 될 예정임.
- 수출개선과 함께 채무구제가 확정되어 D.S.R.이 5%대로 낮아졌 으며, 외채의 대부분이 양허성차관(63.6%)이어서 단기외채 비중도 10%대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7년 이후 외환보유액 감소세 전환

- 외환보유액은 해외원조, HIPC 잠정채무구제에 의한 이자비용 경감, 수출과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 외국인투자 유입액 확대 등으로 2006년에는 26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2007년 이후 수입증가에 따 른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소폭 감소하였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온두라스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2007	2008	2009(1~10월)	주요 품목
수 출	131,584	130,729	58,004	전선, 수송기계, 직물
수 입	59,133	36,522	36,522	농산물, 석유제품
합 계	190,717	167,251	94,526	

\*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국교수립 : 1973. 4. 1 수교(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 : 문화협정('70), 투자보장협정('00)
- 해외직접투자(2009년 9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46건, 113,129천 달러

## V. 종합의견

- 2004년 HIPC 채무 탕감 수혜와 2006년 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 (DR-CAFTA) 발효로 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2008년 중 국제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상승,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해외송금 감소 등으로 성장 동력이 크게 약화되었음. 또한 2009년 6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인해 각종 투자계획이 취소되고 대외원조가 중단되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됨.
- 정치적으로는 양당제가 정착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유지되어 왔으나, 군부 쿠데타 발생, 셀라야 대통령의 밀입국, 2009년 11월 29일 대선 등으로 인해 정국은 매우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외채 관련 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국 불안으로 인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의 보전 수단인 대외원조와 FDI 유입이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신정부 취임 전까지 IMF 재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등 대외지급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어, 동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C3에서 D1으로 1단계 하향 조정코자 함.